

메길로트(מגילות)의 신학에 대한 소고: 인지시학의 관점에서

이호성(백석대)

1. 들어가는 말

히브리어 정경에서 케투빔(כתובים, writings)을 시작하는 세 권의 책들(시편, 잠언, 욥기) 다음에는 다섯 권의 작은 책들(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을 하나로 묶은 메길로트(מגילות, scrolls)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 정경의 토대인 칠십인역(LXX)에서 다섯 권의 책들은 다른 책들 사이에 배열되었다.¹ 기독교는 이 묶음(메길로트)의 무효 위에 기독교 정경 순서에 따라 연구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구약 연구에서 마소라 사본(MT)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히브리어 정경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이다.² 메길로트에 대한 몇몇 현대적인

1 Walter Brueggemann/Tod Linafelt,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and Christian Imagin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353-354.

2 Jack Miles, *God: A Biography* (London: Touchstone, 1996), 15-19. 정경의 배열은 문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절기의 예전을 위한 인위적인 목적 그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구약 성서에 대한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 간에 다른 정경 구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³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에서 메길로트 연구가 전개되지 않는 문제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기독교의 정경 배열순서와 무관하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MT를 포함하여 모든 히브리어 사본에서 룿기-아가-전도서-애가-에스터는 비록 순서에 유동성이 많지만 하나의 두루마리로 분류되어 왔다. 이 다섯 권은 6세기 이후 유대의 주요 절기에 맞추어 아가(유월절)-룿기(오순절)-애가(아브월 9일)-전도서(장막절)-에스터(부림절)의 순서로 사용되었다.⁵ 반면에 B.C.E. 3세기부터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LXX의 배열은 구약사에 초점을 둔 연대기적 맥락을 보여준다.⁶ 여기서 기독교는 메길로트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늦은 시기에 절기를 위해 활용된 특징만을 유대의 전통으로 여겨왔다.⁷ 따라서 하나

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히브리어 정경 배열의 전통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3 콘라드 슈미트, 「고대 근동과 구약 문헌사」 (이용중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51-52. 원제는 Conrad Schmid, *Literatur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Eine Einführ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4).
- 4 지난 40여 년간 구약 연구는 정경 형성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최종 본문 읽기와 평가로 확장되었다. 최종 본문 읽기는 기독교 정경의 토대가 되는 칠십인역 배열순서에 간주관적(間主觀性, inter-subjectivity) 권위를 두고 있으므로, 기독교에서 룿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터를 하나의 모음집(메길로트)으로서 읽거나 읽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드물 수밖에 없다.
- 5 콘라드 슈미트, *윗글*, 51-52.
- 6 캐런 줍스/모세 실바, 「70인역 성경으로의 초대」 (김구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7), 41-52. 원제는 Karen H. Jobes/Moiseses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2000); 김구원/칩 하디, 「쉬운 구약 개론」 (서울: 흥성사, 2020), 14-15, 299-303; Eugene Ulrich, "The Jewish Scriptures: Texts, Versions, Canons", John J. Collins/Daniel C. Harlow(eds.), *Early Judaism: A Comprehensive Overview* (Grand Rapids: Wm.B.Eerdmans, 2013), 127-128.
- 7 Barry G. Webb, *Five Festal Garments: Christian Reflections on the Song of Songs, Ruth,*

의 메길로트로 읽는 독서 방식을 외면함으로써 다섯 권 간의 상호 관계와 구조, 공유하고 있는 맥락에 담긴 풍성한 해석의 유익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둘째 지금까지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에서 케투빔에 속한 책들의 경우 분류 방법에 따라 70여 종류의 다양한 배열순서가 발견되었다.⁸ 따라서 케투빔의 하위 단위인 메길로트 배열순서의 중요성도 부정될 수밖에 없었다.⁹

이 밖에도 메길로트를 간과하는 이유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행동이 눈에 띄게 부족하거나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¹⁰ 에스더와 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며, 룯기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단 두 번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전도서와 애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파괴적인 행동 또는 부재 상황에 대한 의문 제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언급이 부족하다. 그러나 히브리 정경의 특징(토라에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네비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케투빔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한다)을 감안한다면¹¹ 메길로트는 케투빔의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메길로트 다섯 권은 정경적, 신학적, 문학

Lamentations, Ecclesiastes and Esther (Westmont: InterVarsity Press, 2001), 13-16.

- 8 Roger T. Beckwith,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and Its Background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Co., 1986), 450-464; Julius Steinberg, *Die Ketuvim: ihr Aufbau und ihre Botschaft* (Hamburg: Philo, 2006), 133; Peter Brandt, *Endgestalten des Kanons: das Arrangement der Schriften Israels in der jüdischen und christlichen Bibel* (Berlin: Philo, 2001), 148-171.
- 9 Timothy J. Stone, *The Compilational History of the Megilloth: Canon, Contoured Intertextuality and Meaning in the Writings* (Tübingen: Mohr Siebeck 2013), 34-35.
- 10 Megan F. Strollo, "Initiative and Agency: Towards a Theology of the Megilloth", Brad Embry(ed.), *Megilloth Studies: The Shape of Contemporary Scholarship* (Sheffield: Phoenix Press, 2016), 151-152.
- 11 볼프 렌트르프, 「구약정경개론」(하경택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23. 원저는 Rolf Rendtorf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kanonischer Entwurf, Band 1: Kanonische Grundleg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1).

www.kci.go.kr

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구약 연구에서도 메길로트에 담긴 신학적 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섯 권이 메길로트의 목차를 구성하는 거시 구조의 통일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인지시학(cognitive poetics)¹²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¹³ 인지시학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평적 신학(horizontal theology)¹⁴의 특징인 인간(캐릭터, 시인 및 화자, 코헬렛)의 경험이 구체화되는 과정과 인지시학의 토대인 ‘몸의 철학

12 인지시학 방법론(cognitive poetics approach)에서 인지는 읽기의 정신작용에 해당하며, 시학은 문학 기교 또는 문체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된다. 인지의 학문적 영역은 뇌과학, 신경정신의학, 심리학, 분석철학, 언어학 등의 학제간 융합이다. 시학은 주로 문체론, 의미론에 대한 언어학, 문학비평학, 문예창작학 등의 융합이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학문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인지시학의 방법론적 속성을 ‘interfusion(교용, 敎融)’이라고 부른다. 예술이나 문학의 경우 사고와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특성이 있는데, 사고와 정서는 독립된 체계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드러내는 텍스트의 기표 체계가 하나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되었다. 인지시학에 대한 많은 개론서 중에서 본 논고는 주로 다음을 참고하였다. Joanna Gavins,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3); Peter Stockwell,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London: Taylor & Francis Group, 2002); Idem, *Texture: A Cognitive Aesthetics of Reading*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Reuven Tsur, *What is Cognitive Poetics?*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83); Idem, *Poetic Rhythm: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Empirical Study in Cognitive Poetics*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2021); Elena Semino, *Language and World Creation in Poems and Other Texts* (Oxfordshire: Routledge, 2014); Elena Semino/ Jonathan Culpeper, *Cognitive Stylistics: Language and Cognition in Text Analysis* (Amsterdam: J. Benjamins Pub. 2002); Geert Brône/Jeroen Vandaele, *Cognitive Poetics: Goals, Gains and Gaps* (Berlin: Mouton de Gruyter, 2009); Karin Kukkonen, *A Prehistory of Cognitive Poetics: Neoclassicism and the Nove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Alina Kwiatkowska, *Texts and Minds: Papers in Cognitive Poetics and Rhetoric* (Frankfurt: Peter Lang GmbH, Internationaler Verlag der Wissenschaften, 2014).

13 인지시학의 주요 분석 항목에는 전경과 배경(Figure and ground)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두드러지는 자질 또는 맥락에 함축된 언어적 특성 분석, 언어 사용 과정과 관련된 도식이론(schema theory), 본문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도록 돕는 지시적 언어 작용인 직시(deixis), 캐릭터(화자, 시인)에 의한 담화 세계와 정신 공간(discourse worlds and mental spaces)을 통하여 구문론적 양상(modality)과 화용론적 양화(quantification)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하여 정보와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등의 분석 항목들이 있다.

14 수평적 신학(horizontal theology)은 각주 24를 참조하라.

(philosophy in the flesh)¹⁵의 개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 15 Mark Johnson, 「마음 속의 몸」(노양진 옮김), (서울: 철학과학실사, 2000), 28; 노양진, 「몸 언어 철학」(경기: 서광사, 2009), 6; George Lakoff/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74-93; Mark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14-40;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5-153; 몸의 철학(philosophy in the flesh)은 인지시학의 토대가 되었다. 20세기 후반 레이코프(G. Lakoff), 존슨(M. Johnson), 터너(M. Turner) 등이 언어철학연구에 인지과학을 접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레이코프(G. Lakoff) 등이 오늘날 인지시학으로 불리는 학문적 영역을 개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지시학이 하나의 방법론적 분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몸의 철학'이라는 본질적인 이론을 다루었으므로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20세기 중반까지 언어와 철학 연구의 전통적 기준이나 관점은 인간을 마음의 존재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 '정신주의(마음의 철학)'가 지배적이었으나, 20세기 말부터 '체험주의(몸의 철학)'로 관점의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 해석에서도 줄곧 나뉘어 있었던 언어학과 문학비평학 간의 관점은 '몸'과 관련된 체험 연구가 강조되면서부터 인지 과정에 수반되는 지각 능력 분석 체계 및 체험주의라는 학문성을 정립해 가고 있다. 체험주의는 인간의 '경험'을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하나는 '자연적 층위(신체적, 물리적 층위)', 또 하나는 기호적 층위(정신적, 추상적 층위)다. 기호적 층위는 자연적 층위에서의 경험에 의존적이지만, 기호적 층위는 자연적 층위에 의해 제약이 가능하므로 인간의 모든 경험은 '몸'으로 출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embodied(체현된, 신체화된)' 된 것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이 제시되었다. 오늘날 '몸의 철학'은 인간의 언어와 관련된 사고, 감정, 행동 및 그 동기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경험 분석의 기준이 되었고, 영문학, 중문학, 국문학 등에서 작품 해석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관, 은유, 이미지 분석 항목에 한정된 수준이므로 기준에 문학비평 방식과의 차이를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게빈스(J. Gavins), 스톡웰(P. Stocwell), 츠어(R. Tsur), 기브스(R. W. Gibbs), 오틀레이(K. Oatley), 웅게러(F. Ungerer) 등은 아래와 같이 화용론(pragmatics)의 주요 개념들을 확장하여 인지시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

화용론의 주요 항목들		인지시학의 분석 항목들
① 말한 것의 의미	지칭(reference)	전경과 배경(figure and ground)
	전제(presupposition)	원형(prototypes)
	직시(deixis)	직시(deixis)
② 말한 것 이상의 의미	직시(deixis)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	도식이론(schema theory)
	함축(implicature)	담화 세계, 정신 공간(mental spaces)
	공손성(politeness)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기타		비유로서의 문학(literature as parable)
		기타 (음운의 활용, 이미지리, 보이스 등)

인지시학에서 문학(산문과 시를 모두 포함)이란 인간의 말과 소통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몸의 경험에 의존하여 체현된(embodied) 인지 과정과 마인드를 포함하고 있다.¹⁶ 오늘날 구약 연구에서 인지시학을 활용한 접근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¹⁷

-
- 16 인지시학은 동일한 세계관 속에서 존재하는 저자와 독자 간 공유된 '체험(경험, 모험)'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대화 관계에서 생략된 정황 및 인지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유된 체험들은 일상의 언어 습관과 같아서 생략하더라도 원 독자와의 소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시학의 학문적 속성인 '체험(몸의 철학)'이 메길로트 다섯 권의 문학적 속성인 '체험(모험)'과 동일하게 보았다. 룯기와 에스더의 모험과 성장 이야기는 체험(모험) 중심의 서사라는 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아가와 애가 역시 사랑하는 상대자와 부제 중인 여호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정서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전도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해 왔던 수고들을 돌아보면서 운명을 해석해 나간다.
- 17 구약 연구에서 인지시학에 대한 관심은 다음을 참고하라. Albert H. Kamp, *Inner Worlds: A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to the Book of Jonah* (Bosto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4); Emmylou J. Grosser, "A Cognitive Poetics Approach to the Problem of Biblical Hebrew Poetic Lineation: Perception-Oriented Lineation of David's Lament in 2 Samuel 1:19-27", *Hebrew Studies* 58(1) (2017), 173-197; Idem, *Unparalleled Poetry: A Cognitive Approach to the Free-Rhythm Verse of the Hebrew Bib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Idem, "The Poetic Line as Part and Whole: A Perception-Oriented Approach to Lineation of Poems in the Hebrew Bible" (Ph.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13); Lénart J. de Regt, *Linguistic Coherence in Biblical Hebrew Texts: Arrangement of Information, Participant Reference Devices, Verb Forms, and then Contribution to Textual Segmentation and Coherence* (NJ: Gorgias Press LLC, 2019); Elizabeth Robar, *The Verb and the Paragraph in Biblical Hebrew: A Cognitive-Linguistic Approach* (Leiden: Brill, 2015); Bonnie Howe/Joel B. Green, *Cognitive Linguistic Explorations in Biblical Studies* (Berlin: de Gruyter, 2014); Job Y. Jindo, *Biblical Metaphor Reconsidered: A Cognitive Approach to Poetic Prophecy in Jeremiah 1-24*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Idem, "Toward a Poetics of the Biblical Mind: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Vetus Testamentum* 59 (2009), 222-243.

2. 신학적 통일성과 옴니버스¹⁸ 문학구조

고대 히브리어 문헌들이 정경으로 수용되는 문헌사적 측면에서 메길로트의 배열은 당시 신앙 공동체의 신학을 통해서 재해석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고대 문헌들의 편집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제2성 전기를 고려할 때¹⁹ 성전 재건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열망속에는 왕정 시대의 문화와 문학을 포함하고 있었다.²⁰ 여기서 문화와 문학의 관계는 둘 중에 무엇을 상위 범주로 구분하기 보다는 대화적 관계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¹ 문화가 인간의 언어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문학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문학이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도

18 Alfonso G. Dagron/Thomas Tufte, *Communication for Social Change Anthology Historical and Contemporary Readings* (South Orang.: Communication for Social Change Consortium, 2006), 15-23; D. S. Diffrient, *Omnibus Films: Theorizing Transnational Cinema*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2), 1-36. 라틴어 omnibus는 '모든 것'을 뜻하는 3인칭 주격 단수인 omnis의 여격 복수형으로서 '모든(것)들에게'라는 의미이며, 1820년대 파리의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말-마차의 명칭인 'horsebus'라는 합성어로 활용되었다. 'horsebus'라는 신조어가 사용된 이후 omnibus는 대중적으로 한 번에 많은 것을 제공하거나 관련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대중매체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었다. 대중교통 수단에서 대중매체로 확장된 옴니버스는 공적인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수반되어 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소통을 넘어 사회적 사건과 상황을 두고 해석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omnibus는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식을 의미하며, 오늘날에는 주로 영화 장르와 관련된 용어로 활용되었다. 영화에서는 독립된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제공되는 것을 뜻하거나, 두 명 이상의 감독(작가)이 서로 다른 단편을 통하여 자율적이면서도 메시지, 텍스트의 흐름, 맥락을 공유하는 하나의 작품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단편들(룻, 아가, 애가, 전도서, 에스더)'을 한 권의 모음집(מגילת, 두루마리들)으로 구별하여 보존했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문화와 예술 의식에 접근함으로써 오늘날 옴니버스의 의미를 메길로트에 적용하여 '옴니버스 구조'로 제시하고자 한다.

19 John J. Collins, "Early Judaism in Modern Scholarship", John J. Collins/Daniel C. Harlow(eds.), *Early Judaism: A Comprehensive Overview* (Grand Rapids: Wm.B.Eerdmans, 2013), 2.

20 Eugene Ulrich, *윗글*, 122-124.

21 미하일 바흐친, 「말의 미학」 (박종소/김희숙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06), 467-469. 원제는 M. M. Bakhtin, *Эстетика словес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Moskva: Iskusstvo, 1986), 348-350.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길로트는 무성전(templeless)을 경험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문학이 공유하는 민족 정체성 회복 운동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잘 읽혀진다.²²

다섯 권은 대체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을 위한 언약 이행의 책임을 가진 인간에게 집중되고 있는 유대교 신학의 통일성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본질 또는 계시에 초점이 있는 기독교 신학과 대립하는 면이 있다.²³ 특히 다섯 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수직적으로 선포하는 계시의 특징이 없다. 반면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진 신학으로 통일되어 있다. 갈빈(Garrett Galvin)은 이와 같은 특징들을 수평적 신학(horizontal theology)이라고 했다.²⁴

22 메길로트 각 다섯 권에 대한 저자, 저술 연대, 편집 시기 등에 대한 정경적 논의와 수집 시기, 배열 등의 문제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초과하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컬렉션의 가치에 한정하였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알려진 절기 예전을 위한 가치 외에, 각 권이 공유하고 있는 맥락, 구조와 관련된 문학적 통일성에 대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저자, 저술 연대, 편집 시기 등의 통시적 근거들과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학성에 한정된 공시적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각 권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체험(경험, 모험) 중심의 전개 구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섯 권은 인생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하여 자신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전개 과정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민족 정체성 회복 운동의 관점에서 읽기'란 역사적으로 어느 한 지점을 지목하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다. 모든 시기와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누구에게나 늘 존재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초월적인 관점에 가깝다.

23 Marvin A. Sweeney, "Foundations for a Jewish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Prophets in Dialogue", Isaac Kalimi(ed.), *Jewish Bible Theology: Perspectives and Case Studies*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162-163.

24 Garrett Galvin, "Horizontal Theology in The Megilloth", Brad Embry(ed.), *Megilloth Studies* (Sheffield Phoenix Press, 2016), 125-138; Idem, "Where Is God in the Megilloth?", Brittany N. Melton(ed.), *A Dialogue on the Ambiguity of Divine Presence and Absence* (Leiden: Brill, 2018), 179-189; William F. Lynch, *Images of Faith: an Exploration of the Ironic Imagination*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3); Pier Angelo Sequeri, *Teología fundamental: la idea de la fe* (Salamanca: Ediciones Sígueme, 2007); Julia D. E. Prinz, *Endangering hunger for God: Johann Baptist Metz and Dorothee*

수평적 신학은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불리는 개념과는 달리 신학을 하는 방법과 같아서, 각 책의 캐릭터 및 시인, 화자의 경험(모험)을 구체화하는 공통된 특징이 다섯 권을 묶는 결속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문학 현상으로서 읽을 때, 메길로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환과 소망을 담은 다섯 개의 옴니버스(omnibus) 형식을 갖춘 민족적 서사시에 가깝다.²⁵ 다섯 권을 메길로트

Sölle at the Interface of Biblical Hermeneutic and Christian Spirituality (Berlin: Lit, 2007); Megan F. Strollo, *Theologies of Human Agency: Counterbalancing Divine Inactivity in the Megilloth* (Lanham: Fortress Academic, 2023), Idem, "Initiative and Agency: Towards a Theology of the Megilloth", Brad Embry(ed.), *Megilloth Studies* (Sheffield Phoenix Press, 2016), 151-152. 갈빈(Garrett Galvin)이 강조한 수평적 신학(horizontal theology)의 배경은 인간의 경험과 관련된 성경의 서사적 특징을 수평과 수직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했던 린치(William F. Lynch)와 세큐리(Pierangelo Sequeri) 등의 고찰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기독교 구원론(이신칭의)의 관점에서 행위(경험)의 강조는 세속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메츠(Johann B. Metz), 쉴레(Dorothee Sölle) 등이 인간의 경험과 실천의 맥락은 궁극적으로 신성(divinity), 거룩(holy)을 향한 목적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성육신(incarnation) 신학으로 보강하였다. 최근에는 갈빈(Garrett Galvin) 외에도 스트롤로(Megan F. Strollo) 등이 성육신의 신학을 일상생활의 신학으로 확장하여 신학의 수직성이 가진 추상적, 신비적, 정치적 관점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메길로트(메길로트 신학) 연구가 기독교내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인간의 체험(행위를 포함하는)에 대한 서사의 신학으로서 성육신의 수평성에 대한 논의 이후 보다 활발한 전개가 예상된다. 반면에 인지시학방법론 자체만 두고 볼 때에는 메길로트를 넘어서 타나크 전반적으로 무척 유용한 문학 분석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5 본 연구는 옴니버스의 대중 매체적 사회성을 메길로트 수집과 관련된 특징으로 제한한다. 다섯권이 하나의 모음집으로 구성될 때 옴니버스의 특징에 따라 각 작품을 이끌어가는 캐릭터, 삶의 정황, 문체 및 형식 등은 자율적이다. 그러나 한 단어나 문장 단위의 은유가 아닌 인지시학에서 다루는 정신공간(mental space)의 차원에서의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한 개념의 영역을 또 다른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는 은유) 이론을 적용할 경우, 다시 말해서 다섯권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의 시간과 장소를 무성전기(또는 성전)로 두었을 때, 무성전으로 비유될 수 있는 각 권의 보조관념들의 관계는 개념적으로 통합(integration) 또는 혼성(blending)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은유에서 원관념에 해당하는 무성전에 대한 보조관념으로 룯기와 에스더는 성전을 벗어나 타국 생활을 하는 배경을 보조관념으로 삼고 있으며, 아가와 애가는 사랑이 고백되는 장소와 아름답던 영광이 훼손된 장소의 대조적인 배경이 무성전에 대한 보조관념으로 은유된다. 전도서의 경우는 인생에서의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육신을 무성전(성전) 대한 보조관념으로 은유된다. 은유는 지금까지 항상 사용하던 언어의 관념들 속에서 한 번도 맺어진 일이 없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 결합함으로써 문학적으로 신선한 생명감을 불어넣는 목적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섯 권의 다양한 보조관념들은 원관념 아래에서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메길로트의 옴니버스의 특징을 개념적 은유의

의 목차로 볼 경우 <표 1>²⁶과 같이 전도서를 중심축에 두고 책의 시작과 끝에 배열된 룯기와 에스더는 타국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여주인공의 모험을 담은 이야기체의 대칭구조가 두드러진다.

보조관념으로 구조화했을 때 룯기와 에스더는 같은 보조관념으로서 짝을 이루며, 아가와 애가는 대조되는 보조관념으로서 짝을 이루며, 중심축에 있는 전도서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짝을 이루는 문체를 가지고 있으며, 인생의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는 육신을 성전(무성전)에 대한 보조관념으로 은유됨을 알 수 있다. 정신공간 차원에서의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통합(integration), 혼성(blending)에 대한 이론은 각주12)와 함께 다음을 참고하라. G. Fauconnier/Mark Turner,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Y: Basic Books, 2002), 269-298.

- 26 Yonatan Grossman, "Chiastic and Concentric Structures in Tanakh", Etzion.org.il. Accessed 2 October 2023. <https://etzion.org.il/en/tanakh/studies-tanakh/literary-readings-tanakh/chiastic-and-concentric-structures>.; S. Bar-Efrat, "Some Observation on the Analysis of Structure in Biblical Narrative", *VT* 30 (1980): 154-170; Idem, *Narrative art in the Bible*, 3rd ed. (Sheffield: Almond Press, 1997), 98-99; 김창대, "〈서평〉 Ernst Wendland, *Prophetic Rhetoric: Case Studies in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Longwood, Fla: Xulon Press, 2009)", 「성경원문연구」 32호 (2013년), 214-234; 김창대,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권 5호 (2018년 12월), 50, 59; 김도형, "동심원 구조로 본 창세기 38장의 위치와 문학적 맥락", 「대학과 선교」 35집 (2017년), 93-95. 대구구조(chiastic structure)와 동심구조(concentric structure)에 대한 기준과 차이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그로스만(Yonatan Grossman)은 에프라트(S. Bar-Efrat)가 분류한 4가지 대구 패턴의 특징을 활용하여 구조적 차이를 추적하였다. 그로스만에 따르면 대구구조는 문학적 텍스트나 문장에서 요소들이 교차되어 A-B-B-A와 같은 형태로 요소들을 배열함으로써 주로 이야기의 중심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반면에 동심구조는 중심축이 항상 단일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에 기여하며 각 요소들은 대칭되는 상대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배열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여러 요소들은 원과 같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구조들에 대한 구분과 활용은 중요한 아이디어와 주제를 여러 층위에서 강조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비록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각 구조의 방식(문맥과 사용된 텍스트)에 따라 이해와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대와 김도형에 따르면 동심구조는 중심을 차지하는 내용이 중앙(중심축)에 있다. 이 중심축은 각 단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의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동심원 외곽으로 그 영향력이 퍼져가는 원리로 정의한다.

4가지 패턴의 특징 비교

(1)	A A'	평행(Parallel Pattern)	X(중심축) 유무
	A X A	원형(Ring Pattern) ↓ 〈확장된 패턴〉	
(2)	A B B' A'	대구(Chiastic Pattern)	X(중심축) 유무
	A B X B' A'	동심(Concentric Pattern)	

www.kci.go.kr

표 1. 메길로트의 옴니버스 문학성과 동심(concentric) 구조

룻기 (A)	해외 → 입국 배경, 여주인공이 개인적 위기를 이겨내는 모험(이야기체)
아가 (B)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Best Song), 운문체(자유시)
전도서 (C-C')	혼합 장르(산문, 운문), 인간의 운명/숙명(מִקְרָה)에 대한 인생의 때(좋은 때-악한 때)에 대한 논의
애가 (B)	버림받은 신부, 딸 시온의 노래(Worst Song), 운문체(정형시)
에스더 (A')	해외거주 배경, 여주인공이 민족적 위기를 이겨내는 모험(이야기체)

책 내부에 위치한 아가와 애가는 최고의 노래(Best Song)와 최악의 노래(Worst Song)로 양극화된 정서의 대칭을 보여준다. 아울러 아가의 경우 5:2-6:1까지 사랑하는 신랑과 멀어지는 ‘위기’를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데, 애가의 경우에도 3:22-40, 5:19-21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소망’을 고백함으로써 대조적인 대칭 구도를 갖추고 있다. 책의 중심축인 전도서의 경우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본 코헬렛이 있다. 코헬렛은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의 운명(מִקְרָה/미크레)²⁷이 극과 극으로 대립되는 현상들을 비교하며 해답을 찾아간다.

27 구약성경에서 מִקְרָה(미크레/운명, 숙명)는 전도서를 중심으로 총 10회(전 2:14, 15; 3:19; 9:2, 3; 룻 2:3; 삼상 6:9, 20:26) 사용된다. 전도서 외에는 단 3회 사용되는 희소성 가운데 룻기에 사용된 מִקְרָה 사건(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운명)은 전도서의 מִקְרָה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룻의 מִקְרָה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모든 결과가 실현된 훗날의 관점에서 돌아볼 때, 거룩한 인도에 따라가는 믿음의 행동으로 재해석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מִקְרָה의 시간 감각을 활용하여 전도서 도입부에서는 좋을 때와 악할 때를 단조롭게 비교하는 시(전 3:1-8)가 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막바지에 이르자 시간 감각에 대한 권면을 확고하게 담은 시(전 11:9-10)로 발전한다.

이와 같은 거시 구조의 특징들은 각 권에 등장하는 캐릭터 또는 시인, 코헬렛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데올로기 및 신학 문제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²⁸ 다섯 권의 배경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난 장소 및 무성전기 속에서 과거의 영광, 위기, 절망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역사적으로 두 차례 반복된 성전 파괴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재해석을 고민할 수 있다.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사회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신학(성전, 시온)의 파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메길로트에는 파괴 이후의 삶(신앙)에 대한 불확실성의 표현들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확실하게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진리를 향한 모험과 결단(룻기, 에스더)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서의 시적 대화(아가, 전도서, 애가)를 동반하며 불확실성을 헤갈해 간다.

3. 다섯 권에 공유된 담화 세계(정신공간)

위에서 살펴봤듯이 다섯 권은 수평적 신학의 통일성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할(언약의 의무)이 이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관계의 벌어짐이 있다. 이 벌어짐의 간격은 인지시학의 관점에서 담화 세계(정신공간)에 해당된다.²⁹ 이 담화 세계 속에는 화자(캐릭터, 시인, 코헬렛)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이나 위기에 대한 서술(나레이션, 회고)이 있으며, 사건 이후 겪게 되는 물리적 고통과 심리적인 갈등을 표현한다. 같

28 Brad Embry, *Megilloth Studies: The Shape of Contemporary Scholarship*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6), 3.

29 David K Lewis, *On the Plurality of World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86), 104-105; Joanna Gavins, 윗글, 130-140; Peter Stockwell, 윗글, 135-142; 이강호, 「공간 이동의 개념과 언어화: 인지언어학적인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15), 104-112, 141-147.

등은 다섯 권이 공유하는 맥락으로서 시인이 사유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시대정신,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³⁰ 갈등은 마음의 영역이므로 만약 몸으로 지각된 경험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긴장감 있는 서술이 된다. 언약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각각 이행해야 할 의무 불이행 그 자체가 긴장에 대한 서술이다. 언약의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성전 파괴로 확장되는 이 긴장감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신앙의 불확실성을 표현함으로써 정점에 이른다. 메길로트 전체에 퍼져 있는 이 불확실성은 모든 긴장의 서술들을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것이다.³¹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나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나 신앙의 불확실성을 논의하려 한다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표 2>는 과거에 거룩한 종교의식의 대행 장소를 상징하는 성전 의존적 신앙과 이와 대칭적으로 언약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실천적 신앙 사이에 발생된 긴장(신앙의 불확실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³²

표 2. 메길로트의 수평적 신학에서 발생하는 긴장

성전 파괴 이전	긴장(tension)	성전 파괴 이후
Divine Agency	신앙의 불확실성	Human Activity
(종교의식 대행에 의존적 신앙)		(언약 이행 책임과 실천적 신앙)

30 문학비평에서 맥락(context)은 매우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임의의 언어 단위를 가진 통사적 중추(backbone)로서 화자와 독자 간의 공유된 경험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자질로 정의될 수 있다. Herbert H. Clark, *Using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9-58; M. Ariel, *Accessing Noun-Phrase Antecedents* (London: Routledge, 2014), 5-11.

31 Michael V. Fox, *Character and Ideology in the Book of Esther* (Grand Rapids: Eerdmans, 1991), 247.

32 Megan F. Strollo, *읽기*, 153-156.

수평적 신학은 긴장 관계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다섯 권에 대한 통일성의 근거가 된다.³³ 메길로트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불확실성 해갈을 위해 민감한 신학적 경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강력한 긴장감이 나타난다. 따라서 메길로트 다섯 권에는 독자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문예 기법(페르소나, 다인칭) 및 언어 활용 방식과 관련하여 의미의 복수화(중의적, 이중적), 간접 표현 등이 사용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한정된 지면을 감안하여 4인칭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 독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페르소나(persona)³⁴: 롯기와 에스더

페르소나는 독자에게 두 가지 직시(deixis) 효과를 기대한다.³⁵ 독자를 1인칭 주어가 되게 하거나, 화자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페르소나를 입히는 것이 목적이다. 페르소나를 통하여 독자는 담화 세계를 경험할 뿐 아니라 화자의 정

33 Andrew R. Davis, "Ruth and Esther as the Thematic Frame of the Megilloth", Brad Embry(ed.), *Megilloth Studies* (Sheffield Phoenix Press, 2016), 8-17.

34 Roland Greene/Stephen Cushman,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4th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1024-1025; William F. Lanahan, "The Speaking Voice in the Book of Lamentations", *JBL* 93(1) (1974), 41-49. 페르소나(persona)는 로마의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문학에서 목소리를 가진 존재 또는 가상의 인물, 나레이터 등 서술자로 포괄할 수 있는 목소리, 인칭 연구에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35 Joanna Gavins, 윗글, 41-54; Peter Stockwell, 윗글, 43-57; Teun A. van Dijk, *Text and Context: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New York: Longman, 1977), 1-18. 직시(deixis)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텍스트를 볼 때에, 독자 자신이 '나'라고 투영되어 이해하게 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실제 '나'는 내가 아니며, '여기서'도 내가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도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본능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지시 정보를 활용한 문예 기법이다. 언어학적으로는 독자의 지시 공간 체계를 확보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담화가 경험적으로 기술된 행위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와 정신세계에 관심을 고조시킨다.³⁶ 룯기와 에스더에서 독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1인칭 페르소나는 <표 3>과 같이 갈등의 순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운명(전도서의 논제인 hr.q.mi)을 맡기는 결단적 표현에 있다.

표 3. 룯기와 에스더의 페르소나

갈등(선택이 필요한 상황)을 제공하는 타자의 페르소나를 통해 보는 나(다인칭)의 페르소나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돌아가라! 엄마의 집을 향하여	룯 1:8	לְכֻנָּה שָׁבְנָה לְבֵית אִמִּי
내 딸 돌아 돌아가라! 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룯 1:11	שָׁבְנָה בְנֹתַי לָמָּה תִּלְכְּנָה עִמִּי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룯 1:15	שׁוּבִי אַחֲרַי יְבִמֹתֶךָ
너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목숨이 보존될 왕의 집에서	에 4:13	אַל-תִּדְמוּ בְּנַפְשֶׁךָ לְהַמְלֵט בֵּית-הַמֶּלֶךְ



결단(갈등을 이겨내는 상황)을 제공하는 1인칭 나의 페르소나를 통해 보는 나(4인칭)의 페르소나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간다. 당신이 자는 곳에 내가 잔다.	룯 1:16	תִּלְכוּ אִתִּי וּבְאֶשֶׁר תִּלְיִנִי אֲלִין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고 그곳에 장사될 것이다	룯 1:17	בְּאֶשֶׁר תָּמוּתִי אָמוּת וְשָׁם אֶקָּבֵר
당신이 말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룯 3:5	כָּל אֲשֶׁר-תֹּאמְרוּ אֶעֱשֶׂה
그럼에도 나는 나아갈 것이다. 왕을 향하여 법도를 어기고 그렇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에 4:16	וּבְכֵן אֲבֹא אֶל-הַמֶּלֶךְ אֲשֶׁר לֹא-יִכְבֹּת וּכְאֶשֶׁר אֶבְדְּתִי אֶבְדְּתִי

36 윌포 A. 제이콥슨/칼 N. 제이콥슨, 「시편으로의 초대」 (류호준/방정열 옮김), (서울: 대서, 2014), 155-157. 원저는 Rolf A. Jacobson/Karl N. Jacobson, *Invitation to the Psalms: A Reader's Guide for Discovery and Engage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위 본문은 룯기와 에스더를 읽은 독자들이 가장 기념적으로 여기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향방을 좌우하는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선택적 상황으로 일상이 채워져 있으며, 자신의 결단과 선택이 지금의 존재와 미래의 존재보다 앞선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보통 선택에는 두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선택한 것과 또 하나는 자신의 고유성을 부정함으로써 지금의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위한 선택이 있다.³⁷ 룯과 에스더의 선택은 이 두가지 속성을 모두 포함한 선택으로서 곧 새로운 세계를 선택한 것이다.

독자는 페르소나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표 3>은 갈등의 구문과 결단의 구문으로 나누어진다. 갈등 구문의 특징은 1인칭 페르소나인 룯과 에스더의 발화가 아닌 각각의 후견자인 나오미와 모르드개의 명령형 구문이다. 화용론의 관점에서는 직접 화행이므로 룯과 에스더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독자는 나오미와 모르드개의 시선을 통해 룯과 에스더의 페르소나를 인식하게 된다. 타자(또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을 보는 자신에 대한 이 개념을 다인칭(4인칭 이상의 인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³⁸ 갈등 구문의 특징으로 보았다.

37 발터 비벨, 「사르트르」(구연상 옮김), (서울: 한길사, 1999), 190-193. 원제는 Walter B. Goldstein, *Jean-Paul Sartre und Martin Buber; eine vergleichende Betrachtung von Existentialismus und Dialogik* (Jerusalem: R. Mass, 1965).

38 소설의 작문 기법에서 가능세계(possible world)에 대한 표현은 다인칭(4인칭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서술된 1인칭 자아를 다인칭의 개념으로 보는 이론은 일본의 문학가 요코미쓰 리이치(Yokomitsu Riichi)가 1935년에 발표한 순수소설론(純粹小説論)으로부터 시작되었다. 横光利一, “純粹小説論,” 『改造』(1935);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학을 기초로 타자를 통해 인지되는 1인칭을 무시하지 않고 독립된 주체적 존재로서 논할 수 있을 때 4인칭 이상의 용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요코미쓰 리이치의 소설 『紋章(문장), 機械(기계), 旅愁(여수)』로 근거 되고 있다; 4인칭에 대한 개념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진호, “요코미쓰 리이치의 純粹小説論考: 4인칭 생성배경과 그 典型으로서 『家族會議』를 통해 보는 실상과 관련하여,” 『일본문화학보』 62집 (2014년 8월), 107-129; 김상원, “요코미쓰 리이치의 『기계』 일고찰: 4인칭 소설로의

각각의 후견자에게 이별을 강요받은 롯과 에스더는 롯기 1:16, 1:17, 3:5, 에스더 4:16에서 단호한 결단을 보여준다.³⁹ 이 구문들의 특징은 내러티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완료-접두동사(yiqtol)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행할 일에 대한 예고/조짐(denotes)의 용법을 사용하였다.⁴⁰ 에스더 4:16에는 אֲבָרְתִי אֲבָרְתִי וְכִאֲשֶׁר אֲבָרְתִי(아바데티 아바드티 베카 아쉐르/ 내가 죽게 된다면 죽으리이다)와 같이 완료-접미동사(qatal)가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이미 에스더 4:13에서 유다인들로부터 מִכֹּל הַיְהוּדִים/ 믹콜-하이예후딤) 홀로 살아남는 것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인 행위 표현을 위한 구문론적 용례를 보여준다.⁴¹ 롯기가 개인의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에스더는 민족 정체성 회복과 보존에 초점이 있다. 둘 다 결단 구문에서 운명(מִקְרָ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95집 (2015년 11월), 117-137; 이소연, “다성적(多聲的) 서술을 통해 구현된 4인칭 기법 연구: 한강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0집 (2022년 9월), 215-240.

39 Francisco-Javier Ruiz-Ortiz, *The Dynamics of Violence and Revenge in the Hebrew Book of Esther* (Leiden: Brill, 2017), 94-94, 115-117; Else K. Holt, *Narrative and Other Readings in the Book of Esther*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21), 81-82; Michael V. Fox, *Character and Ideology in the Book of Esther*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0), 51, 62-64; Adele Berlin, *Esther*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42; David J. A. Clines, *The Esther Scroll: The Story of the 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4), 33-35; R. D. Holmstedt,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88-92; Peter H. W. Lau, *Identity and Ethics in the Book of Ruth: A Social Identity Approach* (Berlin: De Gruyter, 2011), 92-93; 102-104.

40 John C. L. Gibson/A. B. Davidson,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Edinburgh, UK: T&T Clark, 1994), §61, §62.

41 אֲבָרְתִי אֲבָרְתִי וְכִאֲשֶׁר אֲבָרְתִי(카탈-카탈-조건불변화)는 조건절이다.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또는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등으로 번역된다. 이와 같은 조건은 4:16 도입부에서 모르드개에게 요청했던 내용(모든 유다인들을 모으라!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까지 조건절에 영향을 주었다. 이 조건절은 에스더가 민족을 대표하여 도전하겠다는 결단의 근거가 된다. 특히 4:13-14에서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향하여 '홀로 목숨을 보존할 생각을 하지말라'라는 명령을 하였다. 모르드개의 이 명령은 에스더의 운명이 더이상 에스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며, 이미 공동체에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크레)이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독자들은 두 여주인공의 운명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2) 자유시와 정형시: 아가와 애가

위에서 다룬 페르소나를 통한 직시 효과는 윗기와 에스더만의 특징이 아니다. 다섯 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아가서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다인칭(타자를 통하여 자신을 보게하는) 페르소나로 얽혀져 있다.⁴² 애가 역시 다양한 화자의 목소리 변화(인칭 변화)가 각 담론의 경계를 구분하는 시적 장치로 사용된다.⁴³ 이와 같은 통일성은 메길로트 내부의 목차인 아가와 애가에서 보다 두드러지므로 시(노래)를 구성하는 형식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언어의 시는 형식(운율)과 내용의 결

42 아가서의 히브리어 본문은 상당히 까다롭다. 영어와 우리말 번역본의 모든 버전들 중에서 구약 학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번역은 없을 것이다. 단순히 시를 해석하는 은유 및 알레고리 측면과 일부 페르시아어 어휘의 어원들을 차치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인 운문의 시형식 자체에 난해함이 있으며, 시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인칭 처리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Scott B. Noegel/Gary A. Rendsburg, *Solomon's Vineyard: Literary and Linguistic Studies in the Song of Song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172-185; J. Cheryl Exum, *Song of Songs: The Bible's Only Love Poem: An Introduction and Study Guide* (London: T&T Clark, 2022), 21-23;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56-57 등의 연구에서 언급하는 인칭 문제, 스피치 스타일에 대하여 필자는 인지시학의 관점에서 다인칭(타자를 통하여 1인칭 자신을 바라보는) 페르소나의 특징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43 William F. Lanahan, 윗글, 41-49; Barbara B. Kaiser, "Poet as 'Female Impersonator': The Image of Daughter Zion as Speaker in Biblical Poems of Suffering", *The Journal of Religion* 67(2) (1987), 164-183; Charles W. Miller, "Poetry and Personae: The Use and Function of Changing Speaking Voices in the Book of Lamentations" (Ph.D. diss., University of Denver Iliff School of Theology, 1996); Knut M. Heim, "The Personification of Jerusalem and the Drama of Her Bereavement in Lamentations", Richard S. Hess/Gordon J. Wenham (eds.), *Zion, City of Our G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129-169; Nancy C Lee, *The Singers of Lamentations: Cities Under Siege, From Ur to Jerusalem to Sarajevo*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2); Kai P. Soltau, "A Reader's Guide to the Message of Lamentations: Structural Analysis as a Key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Lamentations", *BV* 37 (2003), 87-101; Cornelius Houk, "Multiple Poets in Lamentations", *JSOT* 30 (2005), 111-125.

합이므로 의미와 내용을 담아야 하는 시인은 형식에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⁴

아가와 애가는 시형식을 기준으로 각각 자유시와 정형시로 구분할 수 있다. 정형시는 일정한 운율의 배열을 갖추고 반복되는 시를 말한다. 먼저 애가의 경우를 보면, 애가 1장, 2장, 3장은 1개의 글줄이 3쌍의 분행(이행연구, couplet)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가 4장은 1개의 글줄이 2쌍의 분행으로, 애 5장은 1개의 글줄이 1쌍의 분행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운과 율의 활용을 보면 알파벳-답관체를 사용한 운(rhyme)⁴⁵과 분행(이행연구) 내에서 길고-짧은 운각(AU: Accent Unit)에 의한 율격(키나 율격)을 중심으로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애가는 정형시로 분류된다.⁴⁶ <표 4>는 애가 본문의 보편적인 율격과 글줄-배열로 이루어진 정형적 시형식이다.

애가의 히브리어 본문은 <표 4>와 같이 2개의 분행으로 구성된 이행연구의 시형식을 일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분행(stich A)과 분행(stich B) 간 운각(AU: Accent Unit, ■으로 표시)의 비(比)에 따라 율격을 형성하고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이 있는 정형시의 특징을 보여준다. 율격의 유

44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Word and Language* (Hague: Paris Mouton, 1971), 110-111; B. Harshav, "Prosody, Hebrew", *Encyclopedia Judaica* Vol.13 (New York: Macmillan, 1971), 1195-1240.

45 알파벳 이니셜을 활용한 답관체는 두운(頭韻, alliteration rhyme)과 자음운(子音韻, consonant rhyme)을 활용하였다. 운(韻, Rhyme)과 율(律, Meter)의 활용 구분은 다음을 참고하라. John Lotz, "Metric Typology", Thomas A. Sebeok(ed.),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1960), 142-148. 운(韻, Rhyme)은 ① 각운(脚韻, rhyme), ② 두운(頭韻, alliteration rhyme), ③ 자음운(子音韻, consonant rhyme), ④ 모음운(母音韻, assonance rhy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율(律, Meter)은 (1) 순수 음절 율격(pure-syllabic meter)의 관점에서 음수율(음절, syllables), (2) 복합 음절 율격(complex meter)관점에서 고저율(성조, tonal-meter type), 강약율(dynamic-meter type), 장단율(durational-meter type)로 구분된다.

46 이호성, "예레미야 애가 1장의 시형식으로 사용된 키나 율격과 구결치기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Ph. D. 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22), 59-71.

표 4. 애가의 정형적인 시형식과 글줄-배열(typography)

ex. 애1:10 BHQ

이행연구(couplet)		운각(AU: Accent Unit)	
분행B (stich B)	분행A (stich A)	은 음영(■)으로 구분	
עַל כָּל־מַחְמֹדֶיהָ 그녀의 모든 보물 위에	יָדוּ פָּרַשׁ צָר 대적 그는 찢다 그의 손	시행1 3:1 키나 울격	
בְּאוֹ מַקְדָּשָׁה 그녀의 성소에 그들은 들어갔다	כִּירְאָתָהּ גּוֹיִם 그녀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	시행2 2:2 평행 울격	절 (verse)
לֹא־יָבֹאוּ בְּקֶהֶל לָהּ : ס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의 공회에서	אֲשֶׁר צִוִּיתָהּ 당신이 지정하셨다	시행3 2:3 역-키나	

형 중에서 앞 분행(stich A)의 운각이 뒷 분행(stich B)의 운각 보다 긴 키나 울격(qinah metric pattern)이 애가의 히브리어 본문 전체(266개 시행)를 주도하고 있으므로(64.3%, 171개 시행) 키나는 애가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⁴⁷ 그런데 애가의 정형적 시형식을 대표하는 키나는 음성적 자질에 해당한다. 번역은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음성적 자질에 대한 번역은 MT뿐만 아니라 여러 사본의 글줄-배열(typography) 확인을 필요로 한다.⁴⁸ 시인은 길고-짧은 소리의 길이 차이를 불평, 원망, 통곡, 비명, 흐느끼거나 가슴을 들썩이는 격정적인 감정 표현에 사용하고 있다.⁴⁹ 반면에 평행 울격(35.7%, 95

47 윗글, 3-4, 59-86, 388.

48 Gideon R. Kotzé, *The Qumran Manuscripts of Lamentations* (Leiden: BRILL 2013), 21-34; James L.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1), 119-127; Shem Miller, "The Oral-Written Textuality of Sticho-graphic Poetry in the Dead Sea Scrolls", *Dead Sea Discoveries* Vol.22 (2015), 162-188.

49 Karl Budde, "Das hebräische klagelied", *ZAW* 2 (1882), 24; Idem, *Die Fünf Megillot: Das Hohelied, Das Buch Ruth, Die Klagelieder, Der Prediger, Das Buch Esther* (Freiburg i. B.:

개 시행)이 간간히 사용될 때마다 시인의 회고적인 서사 또는 상대적 시제를 사용하여 대조적인 상황을 아래의 예시들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ex. 회고적 서사

רַבְּתֵי בְנוֹיִם
민족들 중에서 | 대단했던 그녀

הִיְתָה כְּאַלְמָנָה 애 1:1b-1b'
과부처럼 | 그녀는 되었다 2:2 평행 율격

הָיוּ לָהּ לְאֵיבִים ׀
원수들이 | 그녀에게 | 그들은 되었다

כָּל־הָעֵינָה בְּגָדָהּ בָּהּ 애 1:2c-2c'
그녀를 | 배반했다 | 그녀의 모든 친구들 3:3 평행 율격

ex. 상대적 시제

יָמֵי עֲנָיָהּ וּמְרוּדֶיהָ
그리고 그녀의 핍박을 | 그녀의 환난 날을

זָכְרָהּ יְרוּשָׁלַם 애 1:7a-7a'
예루살렘을 | 그녀는 회상했다 2:2 평행 율격

애가는 이와 같은 시형식(율격의 유형을 활용한 리듬) 위에서 몇 가지 목소리(페르소나)와 상응하는 대화 상대(페르소나)들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아직까지 목소리의 신원이나 연설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5가지 페르소나(목소리)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나레이션을 이끌어가는 시인의 페르소나와 의인화된 예루살렘(또는 시온)의 페르소나가 있다. 시인의 페르소나는 파괴된 도시와 그 폐허 위에서 비탄하는 광경을 설명하면서 영화로웠던 과거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시인이 이끌어가는 이 나레이션 중간에 돌발하는 예루살렘의 목소리(애 1:9c, 11c, 22a, 애2:20a)⁵⁰는 반사적 인식을 유발

Leipzig; Tubingen: Mohr, 1898), 70-108; W. R. Garr, "The Qinah: A Study of Poetic Meter, Syntax and Style", ZAW 95 (1983), 73-74.

50 애 1:1:9c(כִּי הִגְדִּיל אוֹיֵב)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보소서 | 원수가 스스로 높였습니다), 애 1:11c(כִּי הָיִיתִי זוֹלָלָה)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 나는 비천하오니), 애 1:22a(לָמָּוָה לְעוֹלָלָה לְפָנֶיךָ יְהוָה)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보소서 | 원수가 스스로 높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시인이 전달한 내용들을 사실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나타낸다.⁵¹ 둘째 애 3장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고난당한 남자(멸망의 심판 속에서 생존한 남자)로 소개함으로써 독자는 3인칭(남자 페르소나)을 통하여 나를(남자 페르소나) 바라보는 관점을 얻는다. 여기서 남자 페르소나는 멸망을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진술(애 3:1-15)을 통하여 자신의 생존 과정에 대한 독자의 공감(연민)을 얻어낼 수 있다. 셋째, 남자 페르소나는 대화 상대를 1인칭 복수로 전환함으로써(애 3:22-47, 애 4:17-20) 독자들로 하여금 남자 페르소나를 벗어나서 우리라는 집단으로 소속감을 부여한다. 넷째, 남자 페르소나와 애가 1장, 2장에서의 나레이터가 동일한 시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역할(시인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매체)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페르소나로 보았을 때, 시인을 통하여 바라보는 대적의 페르소나(애 1:9-11, 애 2:16, 애 3:46-54, 애 4:21, 애 5:5, 11), 시인을 통하여 바라보는 자녀(시온으로 대표되는)의 페르소나(애 1:4-6, 애 2:13-19, 애 4:2-10, 22)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다섯째는 우리를 대표하는 시인의 페르소나가 여호와께 드리는 간구(애 5:1-22)를 통하여, 그 동안 불확실한 갈등(신앙에 대한 의심 및 정체성)을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확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시형식(글줄배열, 운과 율)을 갖춘 애가에서는 페르소나 사용에 대한 구분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반면에 <표 5>와 같이 자유시로 분류되는 아가의 경우는 페르소나 구분이 난해하다. 일단 아가의 시형식을 살펴보면, 각 절들을 구성하는

녀는 들어가고 있다, 그들의 모든 악을 가지고, 당신 앞으로 | 따라서 당신은 이행하소서, 그들을 향하여), 애 2:20a(הַיְהוָה יְהוָה וְהַבְּיטָה לְמִי עוֹלָלִתָּ כֹה) 여호와여 보소서, 그리고 나를 주목하소서 | 누구에게 이 같이 행하셨습니다?)

51 William F. Lanahan, *율글*, 41-44.

표 5. 아가의 비-정형적인 시형식과 글줄-배열(typography)

ex. 아1:1-4 BHO

이행연구(couplet)		운각 음영(■)	
분행B (stich B)	분행A (stich A)		
<p>כִּי טוֹבִימָּ דְדִיךְ מִיּוֹ: 좋기 때문이다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p>	<p>וְשָׁקֵנִי מִנְשִׁיקוֹת פִּיהוּ 그는 나에게 원한다 그의 입에 키스를 </p>	시행1	1절
<p>שָׁמֶן תּוֹרַק שָׁמֶךְ 그녀는 쏘는다 향기름을 너의 이름 </p>	<p>לְרִיחַ שְׁמֹנֶיךָ טוֹבִים 좋으니 향기로운 당신의 기름</p>	시행1	3절
	<p>עַל-כֵּן עֲלָמוֹת אֶהְבּוּךָ: 이처럼 처녀들이 그들이 당신을 좋아했다 </p>	시행2	
	<p>מִשְׁכְּנִי אֶחְרֶיךָ נְרוּצָה 당신은 나를 리드하라 우리가 달려가리! 당신을 따라 </p>	시행1	4절
<p>נְגִילָה וְנִשְׁמָחָה בָּךְ 우리는 기뻐하리! 당신 안에서 즐거워 하리! </p>	<p>הַבִּיאֵנִי הַמֶּלֶךְ חֲדָרָיו 왕의 침소로 그는 나를 이끌었다</p>	시행2	
<p>מִיִּשְׂרָאֵל אֶהְבּוּךָ: ס 충만하게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다 </p>	<p>וְנִכְיָרָה דְדִיךְ מִיּוֹ 우리는 기억하리!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을 </p>	시행3	

어휘의 분량과 글줄 배열의 패턴, 이행연구의 구성이 불규칙적이므로 운율자체를 논할 수 없다. 자유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⁵² 자유시는 형

52 Bliss Perry, *A Study of Poetry* (Münche: BookRix, 2015), 104-105. 페리(Bliss Perry)는 자유시라고 해도 운율적 구조의 제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힌다. 자유시란 의도적으로 운율을 포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정돈된 시간-리듬이라는 요소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비슷한 소리에 의존하거나, 문장의 배열, 활자 배열의 도움을 받아 운율의 효과를 확보하면서, 각운과 연이 없는 것도 형식에 해당 된다. 이러한 자유시의 특징은 운율을 포기하거나 반복은 없지만 최소한의 정돈된 형식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식적 틀에 내용을 담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경험과 그 과정이 시와 상응해야 한다는 시인의 시관이 형식보다 앞서 있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³ 아가는 불규칙해 보이는(자유로운) 시형식과 함께 다인칭 페르소나가 얽혀져 있으며, 시적 발화에 의한 비틀린 언어 사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과 해석의 어려움은 곧 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아가서 1장의 첫 단락(아 1:2-4)을 보면 2절의 경우 1쌍의 분행, 3절은 1쌍 1/2의 분행, 4절은 3절의 글줄 배열과 반대로 1쌍 1/2의 불규칙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2절 분행A는 3남단(왕) 페르소나를 통하여 1인칭(대격) ‘나(여인)’를 바라보는 다인칭-페르소나의 관점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 분행B(당신의 사랑이 좋기 때문이다)에서 ‘당신(2남단)’에 대한 문맥과 잘 호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행간 연결부에 사용된 불변화사 ‘ㄴ’이 화용론적으로 양화사(量化詞, quantifier)적 성질에 의한 의미의 복수화 현상을 만들기 때문이다.⁵⁴ 따라서 ‘ㄴ’을 등위 접속사로 활용한다면 분행간 구결치기(enjambment)⁵⁵가 작용하여 의미가 연장된다. 따라서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은 독립적인 구문으로 분리되며,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품처럼 들끓는 이미지’⁵⁶까지 감안한다면 여인을 향한 ‘들끓는 왕의 마음’을 설명하는 2절의 종결 구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결치기를 감안하지 못한다

53 김준오, 「시론」(서울: 삼지원, 2019), 163.

54 이호성, 윗글, 115, 122-125. 히브리어 불변화사는 문장의 유형이나 구조의 특성에 따라 초점 불변화사로 사용된다. 초점 불변화사가 사용될 때 시행은 시형식적으로나 담론적으로 2개의 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점화된 범위(focused part)와 배경이 되는 범위(backgrounded part)로 부르며, 각각 대립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55 이호성, “애 1장의 시형식에 대한 연구: 구결치기(enjambment)를 중심으로”, 「구약논집」 26집 (2023년 7월), 8-43.

56 HALOT, 409-410.

면 3절 역시 분행A의 2남단(왕의 향기로운 기름)과 분행B의 3여단(여인의 기름)의 문맥 관계도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분행A 마지막 운각에 사용된 복수형 형용사(טוֹבִים, 좋은)는 화용론적으로 양화사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남단의 기름과 3여단의 기름이 병치되는 구결치기 작용을 통하여, 각각 타자의 페르소나에 의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분행B 마지막 운각의 ‘너의 이름(שֵׁםְךָ)’⁵⁷에서 ‘이름(mve)’은 속격 2남단 접미사로 인하여 그 의미는 관용어를 고려해야 한다. 성경 히브리 관용어 구분의 주요 근거가 되는 의미의 비구성성(non-compositionality)⁵⁸ 이론에 따라 명성(자명하다고 여겨지는)과 관련된 ‘영광스럽거나, 아름답거나’ 등으로 평판 되는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구결치기에 사용된 복수형 형용사(טוֹבִים, 좋은)는 ‘너의 이름’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관용어로 추론해 볼 수 있다.

3절 마지막 시행에 배열된 1/2분행과 4절 도입부 시행에 배열된 1/2분행과의 관계는 구결치기가 작용하지 않는다. 구결치기는 같은 시행(이행연구) 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다. 시인이 3절과 4절로 분리한 의도가 글줄 배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절 마지막 1/2분행에서 처녀들(복수)의 페르소나를 통하여 왕(2남단)의 페르소나를 이해하는 것과 4절 도입부 1/2분행에서 ‘나와 우리의 페르소나’가 동시에 왕(2남단)의 사랑을 원한다는 맥락의 연결은 자연스럽다. 앞서서 살펴봤던 애가에서 ‘나’의 페르소나를 벗어나 ‘우리’라는 집단으로 소속감을 제공했던

57 HALOT, 1548-1551.

58 Manie van den Heever, "Defining 'Idiom' in Biblical Hebrew",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40(1) (2014), 1-21. 성경 히브리어 관용어 연구에서 의미의 비구성성(Non-compositionality) 조건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개념의 조건들이 있다. ‘너의 이름’의 경우 명사적 ‘이름’으로 해석하면 논리의 모순이 있으며, 속격 ‘너’에 초점을 둔 관용적 범위는 앞-뒤 맥락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4절의 시행2, 시행3에서 일관되게 사용된 ‘우리(젊은 처녀들)’라는 페르소나는 왕에 대한 공동체적 찬가를 불러야만 하는 ‘나(우리에 소속된 나)’의 페르소나를 보게 함으로써 왕(왕으로 비유되는 여호와)을 향한 ‘나(우리에 소속된)’의 신앙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확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애가와 아가의 시형식에 차이(자유시와 정형시)는 있으나, 각각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활용하여 신앙의 정체성,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3)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학: 전도서

다섯 권 중에서 전도서만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면 주제와 문학적 특징 면에서 가장 독특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길로트 네 권의 문예적 특징과 수평적 신학이 가진 맥락(개인 및 민족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본다면 독특하게 보이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근거로 풀어갈 수 있다.

첫째 전도서 MT의 글줄-배열(typography)을 보면 산문체(룻기, 에스더)와 운문체(아가, 애가)의 혼합 형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 성경은 문체 구별없이 전부 시(時)적 어감을 살려서 번역했다. 적어도 시형식(문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여 <표 6>과 같이 산문체와 운문체를 구분해 보았다.⁵⁹ 전도서에서 산문체 사용은 운문체 대비

59 소리와 운율에 대한 번역 연구가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 히브리어 시 번역을 위한 대안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최소한 시행의 글줄 배열이 간과된 것과 글줄 구성 단위의 울격(울격 이하 단위인 운각이나 음보)에 대한 기능적 등가에 대하여 진지한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은 향후 우리말 성경 번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오늘날 번역학 분야는 성서번역의 경험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산문 번역과 달리 시의 번역은 두개의 언어(출발어-도착어) 능력과 함께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 후에 그 사상과 감정을 도착어의 시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도착어로 된 시 창작 능력까지 겸비해야 한다. 히브리어학과 한국어학의 학제간 시 번역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특

약 25%(57절)로 계수하였다.⁶⁰ 아울러 <표 6>에서 산문체 단락과 운문체 단락이 공유(반복)하는 어휘 사용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락(산문-운문)간 관계의 호응을 근거할 수 있다.

표 6. 산문체 단락과 운문체 단락이 공유하는 어휘

단락	관계 단락		공유 어휘(또는 동의어)
	산문체	운문체	
1	1:1	1:2-11	אָמַר קהלת(=דָּבַר קהלת)
2	1:12-13	1:14-15	שָׁנְעוּ תחת השמש
3	1:16-17	1:18	בָּרַב(=וְהוֹסַפְתִּי חֲכָמָה)
4	2:3	2:1-2	בְּלִבִּי(=אֲמַרְתִּי אֲנִי בְּלִבִּי)
5	2:13	2:4-12	חֲכָמָה וּסְכָלוֹת
6	2:18-26	1:14-17	וְשָׁנֵאתִי אֶת־חַחֲיִים(עֲמָלִי=)
7	3:1	3:2-9	עַתָּה וְעַתָּה
8	3:10-11	3:12-14	חַוָּא יְהִיָּה לְעוֹלָם(=חַוָּא נְתַן בְּלִבָּם)
9	3:18-19	3:15-17	לְבָרָם(=יִשְׁפַּט הָאֱלֹהִים)

히 도착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경우 어미 활용에 따라 번역(크게는 의미, 작게는 느낌)에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성서보급 협회의 경우 성서번역 이론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1964년 나이더(Eugene A. Nida)를 위촉하여 촘스키(Noam Chomsky), 태버(Charles R. Taber)와 학문적 기초를 세웠다. Eugene A. Nida/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Published for the United Bible Societies, 1969); 한국어 시 번역 연구와 성경 번역학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편, 「번역시의 운율」(서울: 소명출판, 2012); 언스트 R. 웬들랜드/정제순, 「문학적 기능 등가 번역: 성경 번역자를 위한 워크북」 1, 2(경기: 태학사, 2012).

60 본고에서 전도서 MT(MT 4:17-5:19은 NKR 5:1-20로 차이가 있음)의 산문체는 다음과 같다. 운문체 시행 가운데 이행연구가 성립되지 않는 불완전한 분행(소문자 a, b, c로 구분)까지 산문체로 구분하였으나, 분행을 절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전체 222절 대비 대략 57절(25%)로 계수하였다. 해당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 1:12-13, 1:16-17, 2:3, 2:13, 2:18-26, 3:1, 3:10-11, 3:18-19, 3:22-4:1a, 4:4, 4:17b(5:1 NKR), 5:7-8:(8-9 NKR), 5:17-19(18-20 NKR), 6:1-2, 7:28b-29, 8:14-17, 9:11a, 9:11c-12a, 9:12c, 9:14-15, 10:3b, 11:1, 11:10b, 12:9, 12:10b-11, 12:12b-13a, 12:13c. 산문체 구분을 통하여 운문체 단락의 논지와 정보에 상응하는 28개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

10	3:22-4:1a	3:20-21 4:1b-3	(שָׁב אֶל-עַפְרַלְרְאוֹת אֶהְיוּ=) וְשִׁבְתִּי אֲנִי וְאֶרְאֶה (동사격의 수동분사, 명사격의 남성복수) העשקים
11	4:4	4:5- 17a ^(5:1 NKR)	גַּם-זֶה הַבָּל וְרַעוֹת רוּחַ
12	4:17b ^(5:1 NKR)	5:1-6 ^(2-7 NKR)	(דְּבַר-פִּיקָ=) אִינָם יוֹדְעִים לַעֲשׂוֹתָרַע
13	5:7-8 ^(8-9 NKR)	5:9-16 ^(10-17 NKR)	(מִה־יִתְרוֹ=) וְיִתְרוֹן אֶרְיָן
14	5:17-19 ^(18-20 NKR)		(חֶלְקִנְכֶם=) עֶשֶׂר
15	6:1-2	6:3-12	יִתֵּן-לוֹ הָאֱלֹהִים... וְלֹא-יִשְׁלִיטֵנוּ = וּנְפָשׁוּ לֹא-תִשָּׁבַע = וְאֱלוֹ... שׁוֹבָה לֹא רָאָה = מִה־יִתֵּר לְאָדָם
		7:1-12	↓ (better than) טוב... מן...
		7:13-14	↓ (אֶת-מַעֲשֵׂה הָאֱלֹהִים) רָאָה
		7:15-26	↓ (אֶת-הַכֹּל) רָאִיתִי
		7:27-28a	↓ (enlightenment) זֶה מְצַאֲתִי
16	7:28b-29	8:1-6	↓ (אֶל-תַּעֲמוֹד בְּדָבָר רַע=) פִּי-מִלֶּךְ שָׁמוֹר
		8:7-13	↓ וְיִהְיֶה-טוֹב לְיִרְאֵי הָאֱלֹהִים
17	8:14-17	9:1-10	(מִקְרָה=) כָּל-מַעֲשֵׂה הָאֱלֹהִים... וְלֹא וּמְצָא
18	9:11a	9:11b	(וְגַם לֹא...=) שִׁבְתִּי וְרָאָה תַּחַת-הַשָּׁמַיִם
19	9:11c-12a	9:12b	(עַת=) לֹא-יִרְדֶּה הָאָדָם
20	9:12c		(לַעֲת רַע=) עַת
21	9:14-15	9:13	(אִישׁ מוֹסֵבֵן הַכֶּם=) חֲכֻמָּה תַּחַת הַשָּׁמַיִם
		9:16-18	טוֹבָה חֲכֻמָּה
22	10:3b	10:1-3a	חֲכֻמָּה וּסְכָל
		10:4-20	↓ חֲכֻמָּה וּסְכָל
23	11:1	11:2-10a	שִׁלַּח... תִּמְצָאֵנוּ
24	11:10b	12:1-8	(בְּחֻרוֹת-לְדוֹר=) וּשְׁחֻרוֹת
25	12:9	12:10a	קַהֲלֵת חֶכֶם
26	12:10b-11	12:12a	↓ (זֶה-ר=) קַהֲלֵת... דְּבַרִּי אֲמַת
27	12:12b-13a	12:13b	(אֶת-הָאֱלֹהִים יִרְא=) אֵין קִין וְלֹא-גִסּוֹף דְּבַר הַכֹּל נִשְׁמַע
28	12:13c	12:14	(יָבֵא בְּמִשְׁפָּט=) זֶה כָּל-הָאָדָם

전도서 본문을 산문체 단락과 운문체 단락으로 구분함으로써 산문체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전도서의 산문체는 운문체를 중심으로 앞, 뒤에 위치하여 운문체 단락의 논지와 정보를 요약하는 FN(Frame Narrator)의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산문체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각 단락(산문-운문)에서 사용된 동일한 어휘(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형 포함)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산문체 역할의 구별은 본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표 6>에서 제시된 공유된 어휘는 전도서의 전개 구도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래는 각 단락(산문-운문)간 관계의 근거가 되는 공유된 어휘 분석의 일부다. 전도서 1:12-13은 산문체에 어울리도록 사역(私繹)하였다.

산문체_전 1:12-13 BHQ(사역)

אני קהלת הויתי מלך על־ישראל בירוּשָׁלַם:

나 코헬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ונתתי את־לבי

לדרוש ולתור בחכמה

על־כל־אשר נעשה תחת השמים▶

הוא ענין רע

נתן אלהים לבני האדם לענות בו:

나는 그가 지혜 가운데 아담 자손들이 하늘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억압을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고자 나의 마음을 두었다.

산문체(전 1:12-13)와 이어지는 아래의 운문체(전 1:14-15)는 분행 B(שנעשו תחת השמים)를 통하여 13절(▶כל־אשר נעשה תחת השמים)의 어휘를 공유(반복)함으로써 소 단락의 논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표 6>에서 요약하고 있듯이 전도서의 모든 산문체와 운

www.kci.go.kr

문체 간에는 어휘의 반복 사용이 하나의 규칙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운문체_전 1: 14-15 BHQ(사역)

분행B (stich B)

שָׁנַעְשׂוּ תַחַת הַשָּׁמַיִם

해아래에서 | 그 일들은 만들어졌도다

분행A (stich A)

רָאִיתִי אֶת-כָּל-הַמַּעֲשִׂים

그 모든 일들을 | 나는 보았노라

וְהִנֵּה הַכֹּל הֶבֶל וְרֵעוֹת רוּחַ:

바람을 잡으려 애쓰는 도다 | 이 모두가 헛됨이 그러니 보아라

둘째, 문체 구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은 인칭간 대화 관계 또는 지시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독자는 화자를 나레이터(FN: Frame Narrator)와 설교자(QP: Qoheleth Preacher) 또는 솔로몬(QS: Qoheleth Solomon)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이다.⁶¹ 전도서 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상충되는 두가지 이상의 목소리 문제를 <표 7>과 같이 다인칭 페르소나(타자의 페르소나를 통하여 본 1인칭 나의 페르소나)로 접근할 수 있다.

61 Kyle R. Greenwood, "Debating Wisdom: The Role of Voice in Ecclesiastes", *CBQ* (5) (2012), 476-491; Eric S. Christianson, *Ecclesiastes through the Centuries* (Malden, MA: Wiley-Blackwell, 2012), 249;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Eugene, OR: Wipf & Stock, 1999), 15-26; Idem, "Frame-Narrative and Composition in the Book of Qoheleth", *HUCA* 48 (1977), 83-106.

표 7. 전도서의 4인칭 페르소나: 타자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자신 (ex. 전 1:1-2:26)

산문체 단락	화제(Topik), 공유된 어휘, 인칭	시선의 방향 (persona to persona)
1:1	글의 제목: 코헬렛의 연설 קהלת דבְרֵי (=אָמַר)	
1:12-13	문제 제기: 해 아래에서 일생을 수고롭게 하신 엘로힘 תַּחַת הַשָּׁמַיִם וְנִתְּתִי אֶת־לִבִּי נָתַן אֱלֹהִים לִבְנֵי הָאָדָם	1인칭 → 1인칭 나의 마음을 보는 페르소나 3인칭 → 복수에 속한 나의 페르소나
1:16-17	문제 배경: 남들보다 많은 지혜를 얻고자 함 בְּרַב (=הוֹסֵפְתִי הַכְּמָה) דְּבַרְתִּי עִם־לְבַי הַנֶּה	1인칭 → 1인칭 나의 마음을 향해 말하는 페르소나
2:3	문제 배경: 지혜를 얻기 위한 어리석은 욕구들 אָמַרְתִּי אֲנִי בְּלִבִּי (לְכַהֲנָא...בְּשִׂמְחָה)	1인칭 → 1인칭 나의 마음을 향해 말하는 페르소나 1인칭 → 2인칭 나로 명령형을 받은 페르소나
2:13	자가 진단: 어리석은 지혜에 능숙한 나 וּפְנִיתִי אֲנִי לְרֵאוֹת...וְסִכְלוֹת	1인칭 → 1인칭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페르소나
2:18-26	진단 이후: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한계를 직시함 과 함께 삶의 수고에 대한 부정적 감 정들 וְשָׁנֵאתִי אֶת־חַחֲיִים=עֲמָלִי נָתַן...לְשׁוֹב(לְאָדָם)	1인칭 → 1인칭 나의 감정(증오)이 된 페르소나 3인칭 엘로힘 페르소나 → 3인칭 아담(=나)

이와 같이 혼합된 문체(산문과 시의 어울림)와 페르소나의 활용은 유언 또는 자서전적 서술에 가깝다.⁶² 그러나 문체와 문예 기법은 전도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뿐 주제나 장르를 단정할 수 없다. 코헬렛의 성찰 과정에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점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예상치 못하는 사건에 늘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는 이 운명(הַמָּוֶלֶת)/미크레)이 어떻게 믿음과 조화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운명을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문학적인 불안을 불러일으켜서 독자의 감정을 사로잡는다. 또한 그 불안한 운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해 아래) 차원에서의 갈등을 무용한 것으로 보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낮추거나 해소할 수 있다.

4. 메길로트의 수평적 신학: 성육신을 향한 복음

본 연구는 메길로트가 한 권의 옴니버스 문학으로서 다섯 편의 목차(룻-아가-전도서-애가-에스더)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가장 중요하게 공유된 주제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긴장이다. 긴장의 원인은 언약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역할)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갈등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보통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역할과 이미지는 토라에서 족장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의인화된 서술일 것이다. 또한 예언자의 묵시 속에서 즉각적인 임재나 신탁으로 등장하는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미지(의무, 역할) 중 하나로 여긴다.

62 Tremper Longman III, 윗글, 77; 권지성, 「특강 전도서」(서울: IVP, 2021), 19-21, 26-37; 김순영, 「일상의 신학, 전도서: 지금, 여기, 행복한 일상을 위한 코헬렛의 지혜 탐구」(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46-50.

따라서 메길로트 다섯 권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극적 역할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존재할 때 상대적으로 인간에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이 맡겨진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고 창조물들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거워진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인간의 능력과 책임으로 확장되는 모든 경험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메길로트 다섯 권은 각각 하나님의 역할을 결정하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자신 또는 인류(동포, 연인, 딸 시온 등을 포함)의 운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라도 알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인간의 무능력)을 인지(재확인)함으로써 메길로트는 곳곳마다 위기와 불안감으로 채워져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수직 지향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걸어가야 할 수평에 대한 의존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 신학에서 믿음이란 수평적 관점과 관련된 요소들의 의존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모른다. 믿음을 인간의 경험이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초월적 경험으로만 오해하여 추상적이고, 비역사적인 신학을 사유하게 될 우려가 있다.⁶³ 바로 이 지점에서 메길로트는 신학적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길로트 다섯 권이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경험과 실천의 특수성들은 수평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성육신(incarnation)의 신학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인간은 육체로 존재하며, 육체(성전으로 상징되는 장소적 의미를 포함)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육체적 경험은 매우 현실적이고 다양

63 Johanes B. Metz, *Faith in History and Society: Toward a Practical Fundamental Theology* (NY: Seabury Press, 1980), 73-77.

한 감각이 작용한다.⁶⁴ 그렇다면 육체의 경험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에 의해 나와 타인의 억압된 부분들을 읽는 것이 메길로트가 가진 정경적 위상일 것이다.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수직적 관점으로부터 억압된 수평적 신학의 회복(구원론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육체로 상징되는 인간의 경험 즉 메길로트의 신학을 기독교 정경 안에서 열등하게 여기며 부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수평적 관점(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정된 메길로트 다섯 권의 서사적 전개 과정에서, 육체의 지각 능력과 밀접한 인지시학의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았다. 인지시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요소들이 있지만, 메길로트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페르소나였다. 산문체 내러티브로 이루어진 룯기-에스터, 자유시와 정형시의 정서적, 형식적 대비를 보여주는 아가-애가, 산문체와 운문체가 혼합된 전도서는 페르소나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메길로트의 페르소나 활용은 책의 앞-뒤 표지(bookend)로 상징되는 룯기-에스터에서, 메길로트의 내부(아가-애가)와 중심부(전도서)로 갈수록 보다 선명한 화용론적 직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4인칭 이상의 관점(타자의 페르소나를 통해 본 나의 페르소나)을 사용하여, 논제(억압된 인간의 운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예적 기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64 I. Gebara, *Longing for Running Water: Cofeminism and Liberation*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9), 185; 김수연,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본 몸 그리고 성육신”, 『한국조직신학논총』 23집 (2009년 6월), 153-180.

필자의 이 줄고는 향후 메길로트와 인지시학이 구약 연구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하며, 메길로트의 신학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케치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 권지성, 「특강 전도서」(서울: IVP, 2021).
-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김도형, “동심원 구조로 본 창세기 38장의 위치와 문학적 맥락”, 「대학과 선교」 35집 (2017년), 63-101.
- 김순영, 「일상의 신학, 전도서: 지금, 여기, 행복한 일상을 위한 코헬렛의 지혜 탐구」(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김창대, “〈서평〉 Ernst Wendland, *Prophetic Rhetoric: Case Studies in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Longwood, Fla: Xulon Press, 2009)”, 「성경원문연구」 32호 (2013), 214-234.
- _____,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권 5호 (2018년 12월), 39-66.
- 렌트르프, 롤포, 「구약정경개론」(하경택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원저 Rolf Rendtorf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kanonischer Entwurf, Band 1: Kanonische Grundleg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1).
- 슈미트, 콘라드, 「고대 근동과 구약 문헌사」(이용중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원저 Schmid, Conrad., *Literatur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Eine Einführ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4).
- 이호성, “애 1장의 시형식에 대한 연구: 구걸치기(enjambment)를 중심으로”, 「구약 논집」 26집 (2023년 7월), 8-43.
- Beckwith, Roger T.,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and Its Background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86).
- Berlin, Adele, *Esther*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 Brueggemann, Walter/Tod Linafelt,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Canon and Christian Imagin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Budde, Karl, “Das hebräische klagelied”, *ZAW* 2 (1882), 1-52.

- _____, *Die Fünf Megillot: Das Hohelied, Das Buch Ruth, Die Klagelieder, Der Prediger, Das Buch Esther* (Tubingen: Mohr, 1898).
- Christianson, Eric S., *Ecclesiastes through the Centuries* (MA: Wiley-Blackwell, 2012).
- Clines, David J. A., *The Esther Scroll: The Story of the 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4).
- Collins, John J./Daniel C. Harlow(eds.), *Early Judaism: A Comprehensive Overview* (Grand Rapids: Wm.B.Eerdmans, 2013).
- Davis, Andrew R., “Ruth and Esther as the Thematic Frame of the Megilloth”, Brad Embry(ed.), *Megilloth Studies* (Sheffield: Phoenix Press, 2016), 7-19.
- de Regt, Lénart J., *Linguistic Coherence in Biblical Hebrew Texts* (NJ: Gorgias Press LLC, 2019).
- Erickson, Amy/Andrew R. Davis, “Recent Research on the Megilloth (Song of Songs, Ruth, Lamentations, Ecclesiastes, Esther)”, *CBR* 14(3) (2016), 298-318.
- Exum, J. Cheryl, *Song of Songs: The Bible's Only Love Poem: An Introduction and Study Guide* (London: T&T Clark, 2022).
- Fox, Michael V.,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Eugene, OR: Wipf & Stock, 1999).
- _____, *Character and Ideology in the Book of Esther* (Grand Rapids, MI: Eerdmans, 1991).
- Galvin, Garrett, “Horizontal Theology in The Megilloth”, Brad Embry(ed.), *Megilloth Studies* (Sheffield: Phoenix Press, 2016), 125-140.
- Garr, W. R., “The Qinah: A Study of Poetic Meter, Syntax and Style”, *ZAW* 95 (1983), 54-74.
- Greenwood, Kyle R., “Debating Wisdom: The Role of Voice in Ecclesiastes”, *CBQ* 5 (2012), 476-491.
- Grosser, Emmylou J., “A Cognitive Poetics Approach to the Problem of Biblical Hebrew Poetic Lineation: Perception-Oriented Lineation of David's Lament in 2 Samuel 1: 19-27”, *Hebrew Studies* 58(1) (2017), 173-197.
- _____, *Unparalleled Poetry: A Cognitive Approach to the Free-Rhythm Verse of the Hebrew Bib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 Harshav, B., “Prosody, Hebrew”, *Encyclopedia Judaica* Vol. 13 (New York: Macmillan, 1971), 1195-1240.
- Heim, Knut M., “The Personification of Jerusalem and the Drama of Her Bereavement in Lamentations”, Richard S. Hess/Gordon J. Wenham(eds.), *Zion, City*

- of Our G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129-169.
- Holmstedt, R. D.,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 Holt, Else K., *Narrative and Other Readings in the Book of Esther*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21).
- Houk, Cornelius, "Multiple Poets in Lamentations", *JSOT* 30 (2005), 111-125.
- Howe, Bonnie/Joel B. Green, *Cognitive Linguistic Explorations in Biblical Studies* (Berlin: de Gruyter, 2014).
- Lanahan, William F., "The Speaking Voice in the Book of Lamentations", *JBL* 93(1) (1974), 41-49.
- Lau, Peter H. W., *Identity and Ethics in the Book of Ruth: A Social Identity Approach* (Berlin: De Gruyter, 2011).
- Miller, Charles W., "Poetry and Personae: The Use and Function of Changing Speaking Voices in the Book of Lamentations" (Ph.D. diss., University of Denver Iliff School of Theology, 1996).
- Noegel, Scott B./Gary A. Rendsburg, *Solomon's Vineyard: Literary and Linguistic Studies in the Song of Song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 Robar, Elizabeth, *The Verb and the Paragraph in Biblical Hebrew: A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Leiden: Brill, 2015).
- Ruiz-Ortiz/Francisco-J., *The Dynamics of Violence and Revenge in the Hebrew Book of Esther* (Leiden: Brill, 2017).
- Steinberg, Julius, *Die Ketuvim: ihr Aufbau und ihre Botschaft* (Hamburg: Philo, 2006).
- Stone, Timothy J., *The Compilational History of the Megilloth: Canon, Contoured Intertextuality and Meaning in the Writings* (Tübingen: Mohr Siebeck 2013).
- Strollo, Megan F., *Theologies of Human Agency: Counterbalancing Divine inactivity in the Megilloth* (Lanham: Fortress Academic, 2023).
- _____, "Initiative and Agency: Towards a Theology of the Megilloth", Brad Embry(ed.), *Megilloth Studies* (Sheffield: Phoenix Press, 2016).
- Sweeney, Marvin A., "Foundations for a Jewish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Prophets in Dialogue", Isaac Kalimi(ed.), *Jewish Bible Theology: Perspectives and Case Studies*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162-163.
- Tsur, Reuven, *What is Cognitive Poetics?*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83).
- _____, *Poetic Rhythm: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Empirical Study in Cognitive Poetics*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2021).

Ulrich, Eugene, “The Jewish Scriptures: Texts, Versions, Canons”, John J. Collins/
Daniel C. Harlow(eds.), *Early Judaism* (Grand Rapids: Wm.B.Eerdmans,
2013), 127-128.

van den Heever, Manie, “Defining ‘Idiom’ in Biblical Hebrew”,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40(1) (2014), 1-21.

Webb, Barry G., *Five Festal Garments: Christian Reflections on the Song of Songs, Ruth,
Lamentations, Ecclesiastes and Esther* (Westmont: InterVarsity Press, 2001).

검색어

메길로트, 수평적 신학, 인지시학, 옴니버스 구조, 페르소나

[ABSTRACT]

Reflections on the Theology of Megillot: From a Cognitive Poetics Perspective

Ho-Sung Lee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Megillot as a collection. The study of the Megillot in Christianity has not been actively researched. Most attention has been paid to individual books. On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are not part of the Christian canonical order. Another reason is that they were confined by the perception that they were meant for Jewish festivals. Thus, information about the theological and literary features of the Megillot as a collection has been scarce. In recent years, as Christian scholars have become more active in their study of Judaism, there has been a growing Christian interest in the Megillot. Because Megillot is a section contained in Ketuvim, it is studied within the theology of Ketuvim (what humans say about God). It is characterized as a horizontal theology that is concerned with the journey of human experience and adventure. This characterization of theology is the same as the theoretical backbone of the ‘cognitive poetics approach (philosophy in the flesh).’ ‘Cognitive poetics’ can be used to analyze literary works by using human experience and perceptual abilities as the items of analysis. In this study, we interpret the five Megillot (Ruth, Song of Songs, Ecclesiastes, Lamentations, and Esther) using some of the analytical items of ‘cognitive poetics.’ The

www.kci.go.kr

results suggest that the ‘cognitive poetics approach’ is well suited to reveal the rationale behind the ‘horizontal theology’ of the Megillot. Further research and application ar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Megillot, Horizontal theology, Cognitive poetics, Omnibus structure, Persona

투고일: 2023년 10월 09일

심사일: 2023년 10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02일

www.kci.go.kr